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

일본 새기는회 이노우에 요코 대표

“유해 수습은 인도적 문제, 한일 정부가 직접 나서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알려
1991년 새기는회 창립해 활동 중
추도비 설립 후 유해 수습 전환
2013년부터 수습 수중조사 진행

지난 2월 대만 잠수사 사망 ‘애도’
매년 위령재 봉행 관음종에 감사
“조세이탄광 사고, 일본 죄의 상징
유해 수습 우선, 과정서 사죄 요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작은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일본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라는 아픈 역사를 알기 위해 1991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회)’이라는 작은 시민단체를 창립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창립 직후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운동은 지난 1월 1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로 확대됐다.

아픔도 있었다. 지난 2월 7일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잠수 조사에서 대만 잠수사 웨이 수 씨가 조사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해서다. 이노우에 요코 새기는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직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다이버의 유족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3월 6일에는 대만에서 장례식이 있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해안보안청 조사결과가 확인되면 향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유해 수습 사업 방향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노우에 대표는 유해 수습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족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인도적 관점에서 유골 수습 및 반환 문제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이탄광 사고는 일본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일 정부 차원에서 ‘유골 수습·반환’을 통한 화해와 우호로 움직임을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하는 이노우에 대표와의 일문일답.

Q. 한국의 불자에게는 아직 ‘새기는회’가 생소할 수 있다. 단체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사고로부터 50년 후인 1991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시민들에 의해 ‘새기는회’가 결성됐다. 이후 △모든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도비 건립 △피야(배기·배수용 콘크리트통)의 보존 △증언·자료의 수집과 편찬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더불어 1992년 한국 유족회의 결성에 따라 매년 유족을 초청해 추도 집회를 오늘날까지 개최하고 있다.

Q. 추도비와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데만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A. 피야 근처에 추도비를 세울 땅을 찾았지만 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2009년 오랜 숙원이었던 추도비 건립을 위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추도비로 할지에 대해 논의하다가 한국 유족회로부터 “아버지를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는 항의가 있었고, 그 후 1년에 걸쳐 서로의 본심을 터놓고 정중하게 논의를 거듭해 왔다. 2013년 1600만엔의 시민 모금으로 ‘일본인 희생자’와 ‘강제 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라는, 피야를 본뜬 두 개의 추도비가 건립됐다.

Q. 유골 발굴로 활동이 확대된 계기는.

A. 추도비가 건립되고 제막식도 거행된 2013년 2월 2일 ‘새기는회’ 회원들은 목표를 성취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교류회 중 한국 유족회에서 “일본인들은 이것으로 운동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우리는 유골을 수습해 고향으로 모셔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야마구치 다케노부 대표가 “여러분, 자신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시간도 들겠지만, 유해 수습과 송환을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화답했다. 이듬해부터 ‘유골 수습·반환’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게 됐다.

Q. 지난해 잠수 조사에서 유골이 수습돼 큰 주목을 모았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A. 유해 수습 직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형태로 죽음을 맞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유골을 향해 말을 건넸다. 새기는회는 일본의 정책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2018년부터 교섭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해저 탄광이라 유골의 위치와 심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라고만 답변해 왔다. 단 한 조각의 유골이라도 찾아낸다면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2024년 9월 갱구 발견부터 수차례에 걸쳐 잠수 조사에 도전했다. 2025년 8월, 마침내 한국인 다이버에 의해 유골이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유골의 힘으로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 지난 2월 조사에서 대만 출신 다이버 분이 돌아가셨다. 그 후 잠수 조사 일정을 중단했다고 들었다.

A. 사고 발생을 접하고 잠수 조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를 일단 중단하고, 다이버의 유족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3월 6일에는 대만에서 장례식이 있어 참석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보고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잠수 조사를 포함한 유골 수습 방향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Q. 관음종에서는 대만 다이버 사고 직후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A. 전적으로 올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하며, 애도 성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기는회’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유골 수습·반환’을 요구해 왔고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책임을 다해 왔다.

Q. 2017년부터 관음종에서 매년 현지에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A. 한국과 일본 종교단체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늘 바라 왔다. 한국불교 종단인 관음종에서 선도해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유골 수습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것 등에 감사를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Q. 최근 한국에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새기는회는 ‘유골’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골 수습과 반환’은 인도적 과제이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일본 내의 우익 성향의 사람들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죄와 배상’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경우, 일본 현 정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유골 수습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남겨진 직계 유족들은 고령화돼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은 인도적 관점에서 유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그 유골 수습과 반환의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도 동시에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의 활동 계획은.

A. 이번 고귀한 희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한일 공동 사업으로서 유골 수습·반환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 오는 5월 23일에는 ‘새기는회’ 총회를 열고 향후의 방침을 제안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Q.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A.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거듭해 왔다. 그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보상되지 않았다. 조세이탄광은 일본이 저지른 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극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정부로서 성의를 다할 수 있을지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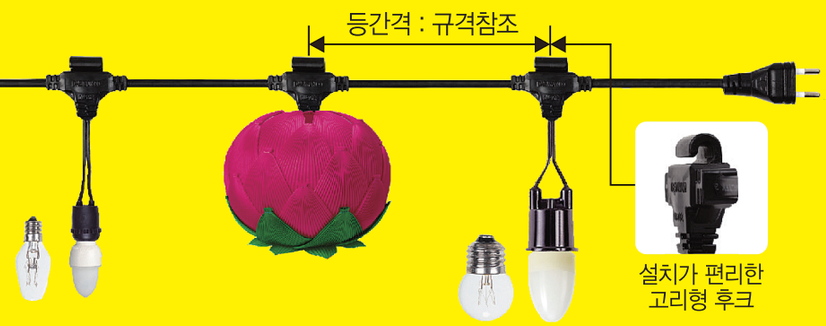
새기는회는 35년의 세월에 걸쳐 유족과의 교류와 화해를 추구해 왔다. 이제부터는 한일 정부 차원에서 ‘유골 수습·반환’을 통한 화해와 우호로 움직임을 진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한국 불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KC 안전인증 JAS-ANZ SMC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